

작업자를 배려한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실현

(주)빙그레 도농공장-

B 빙그레



▲ 김 선 엽 이사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었던 바나나 우유, 지금도 출출할 때나 운동후에 먹는 바나나 우유는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는 나의 애호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바나나 우유를 생산하는 (주)빙그레에서는 어떠한 안전을 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에 방문하였다.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한 제품 다변화로 초일류 종합식품회사로 거듭 성장해온 (주)빙그레는 전국적으로 총 4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에 2개 공장, 중부권에 1개 공장, 남부권에 1개 공장이 있는데, 오늘 찾은 곳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도농공장(김선엽 이사)으로 회사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사고관리를 통해 동종재해 예방

이 곳 도농공장의 김선엽 이사는 사소한 아차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가 모든 사고로부터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팀의 팀장은 징계조치를 받고, 사고이력은 인사평점에 반영된다.

그래서 도농공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팀장이 각 line의 안전활동을 자율적으로 주관하여 이끌어 간다. 아침조회시 5분 안전교육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제조, 위험예지훈련 등이 이러한 것이다.

이 밖에 (주)빙그레 도농공장에서는 모든 공정 line에 근로자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보조의자를 제공하였다. 장시간동안 같은 자세로 작업할 경우 쉽게 피곤해지고, 허리, 다리 등에 무리가 생겨 근골격계질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조의자 배치는 작업자를 배려한 안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모든 작업자에게 1시간마다 작업공정을 바꾸도록 하



는데 이 역시 같은 자세작업은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근원적 사고 원인 제거

(주)빙그레의 과거를 보면 사업장에서 손가락 협착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제품 포장기계, 공압에 의한 실린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손가락 협착사고는 전체 사고의 60~70%를 차지한다. 그중 제품포장단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아이스크림 공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이 모든 설비에 인터록 장치가 있는 안전커버를 설치한 것이다. 작업자의 손이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식품업계 최초로 2000년부터 KOSHA 2000 인증을 획득·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재해자는 고급 강사

모든 사고는 새로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즉, 동종재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과거 재해자의 경험이 안전교육에 있어 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곳 도농공장에서는 과거 재해자를 관리 감독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전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항상 함께 일하던 동료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는 것만큼 피부에 와닿는 교육은 없을 것이라고 박진일 안전관리자는 말한다.

작업자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전년도부터 (주)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소음관리이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음을 1회/월로 측정하여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나 측정치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설비설치 또는 방음공사를 실시하



는 등 소음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한 예로 바나나 우유병을 생산하는 생산 3팀 성형실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우유병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98dB에서 107dB이 평균치이다. 이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측정치이다. 그 후 Operating Room (L2M × W3M × H2.2M)을 설치로 Room 내에는 52dB로 감소시켰고, 포장실은 공기층 50mm를 두고 차음·흡음 공사를 실시하여 82dB까지 소음도를 낮췄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주)빙그레

빙그레라는 단어에 대해 도산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모습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뜻이다. 이를 반영한 (주)빙그레의 경영이념은 모든 이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구리시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소방홍보협의회”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내 소방과 관련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과 경기북부 지역 내의 “산재예방협의회”에 참여하여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안전기술지도 역시 지역사회에 작은 행복을 주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향상된 것만은 확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수준까지는 멀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뚝뚝 뚫린 곳이 (주)빙그레 도농공장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무재해 공장을 이룩한다면 행복을 주는 기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인 될 것이다.

〈최종덕 기자〉

